



2026 세계여성평화 컨퍼런스

자료집

일 시 | 2026년 9월 17일 - 18일

장 소 | 대한민국 청주

주 최 |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사)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 전 나 영

대표 인사말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는 매년 9월,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도 지속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경험이 쌓여 우리의 삶과 역사가 되고, 그 안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일터와 교육 현장, 때로는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 사람을 연결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평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이야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평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책, 나아가 국제사회의 논의에 반영될 때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여성들의 일상과 경험을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며, 이를 더 넓은 사회와 국제사회의 언어로 확장해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실천이 새로운 연대와 행동으로 발전하고, 여성의 평화 리더십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더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만남이 그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소개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쟁과 분쟁뿐 아니라 혐오, 차별,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직장 and 지역사회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가치이며, 이러한 일상의 평화가 모여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에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모든 여성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역량 강화와 평화 리더 양성, 평화교육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여성이 평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여성의 연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며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콘퍼런스는 「일상의 평화, 여성의 파워: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국내외 여성 리더와 평화 활동가, 청년, 시민사회 및 협력 기관 등이 함께 모여 평화 교육을 통해 성장한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뿐만 아니라, 일상과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실천해 온 다양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처럼 본 콘퍼런스는 모든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미래를 실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평화 교육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여성 중심의 평화 리더십을 확산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하며 새로운 평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
- 주제: 일상의 평화, 여성의 파워: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하다
-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 ~18일 (금)
- 장소: 대한민국 청주 엔포드 호텔
- 주최&주관: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전체 일정

시간	9/17		9/18		
10:00~10:30	오프닝 세션 (그랜드볼룸)		학술네트워크 세션 (직지홀A)	평화챗터 워크숍 (직지홀B)	
10:30~11:00					언론 간담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사이드 이벤트1 “AI 시대와 평화” (직지홀A)	사이드 이벤트2 “평화교육과 여성 리더십” (직지홀B)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사이드 이벤트3 “미래세대와 평화” (직지홀A)	사이드 이벤트4 “시민사회와 평화” (직지홀B)	메인세션 “일상의 평화, 여성의 파워 :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하다” (그랜드볼룸)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글로벌 평화 네트워킹 리셉션 (그랜드볼룸)				
17:00~17:30					
17:30~18:00					
18:00~18:30					
18:30~19:00					
19:00~19:30			네트워킹 디너 (그랜드볼룸)		
19:30~20:00					
20:00~20:30					
20:30~21:00					



오프닝 세션

콘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2026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의 개최 취지, 핵심 메시지, 주요 프로그램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7.(목) 10:00~11:00 (60분)
- 장소: 그랜드볼룸
- 대상: 전체

2) 식순

*사회자: 포튜네이트 밀와세 싱가게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0:00~10:03	개회	사회자	영어
10:03~10:13	환영사	IWPG 대표	한국어
10:13~10:28	축사	아흐드 모하메드 살렘 가소스	아랍어
		디아나 카이사	스페인어
10:28~10:55	콘퍼런스 소개 및 운영 안내	IWPG 사무총장	한국어
10:55~11:0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3) 주요 연사



-  **아흐드 모하메드 살렘 가소스** 예멘 정부 여성정책 국무장관
- 지방행정부 장관
 - 여성 역량강화 및 평화구축 분야 활동



-  **디아나 카이사**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 Ambato 최초의 여성·원주민 시장
 - 여성, 원주민 공동체,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관련 정책 추진

사이드 이벤트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인사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평화의 주요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사이드 이벤트는 ① AI 시대와 평화, ② 평화 교육과 여성 리더십, ③ 미래 세대와 평화, ④ 시민 사회와 평화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세션에서는 분야별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제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향후 공동 사업과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질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1. AI 시대와 평화

- 일시: 2026.9.17.(목) 12:30~14:00 (90분)
- 장소: 직지홀A
- 식순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2:30~12:35	개회	사회자	영어
12:35~12:38	영상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AI'	-	-
12:38~12:48	기조강연: AI시대와 평화	미정	
12:48~13:30	패널 토론 Session 1. AI 시대의 새로운 평화 Session 2. 여성 리더십과 AI Session 3. 함께 만드는 평화의 미래	패널1	영어
		패널2	한국어
		패널3	불어
		패널4	몽골어
13:30~13:40	Q&A	전체	-
13:40~13:50	평화메시지 작성	사회자	영어
13:50~14:0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 주요 연사

식순	발표자	발표 키워드
패널1	음부타 마드린 베발로 (잠비아,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부정책·기획·정보국장)	AI와 국제 평화, AI 거버넌스, 국제 협력,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패널2	최영 (한국, 다독AI 연구소대표)	AI 발전과 사회 변화, 허위 정보, 사이버 위협, AI 윤리, 인간 중심 AI
패널3	쉐레테 솔리마니 (코소보, 대통령 특사)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 포용적 리더십, 여성과 평화 구축 현장 경험
패널4	다쉬제벡 오윤빌렉 (몽골, 불간아이막도지사 사무처 자문위원)	미래세대가 원하는 AI



2. 평화교육과 여성 리더십

- 일시: 2026.9.17.(목) 12:30~14:00 (90분)
- 장소: 직지홀B
- 식순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2:30~12:36	개회	사회자	영어
12:36~12:39	영상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는 평화"	-	-
12:39~12:45	기조 연설	시몬 안키	영어
12:45~13:29	평화 실천 사례 발표	패널	영어/스페인어
13:29~13:37	IWPG 사례발표	IWPG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영어
13:37~13:45	종합정리	월터 냐가 마이나	영어
13:45~13:55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 주요 연사

식순	발표자	주제
기조연설	시몬 안키 (아프리카연합, AU-CIEFFA 수석정책 책임자)	평화교육과 여성 리더십: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기반 구축
패널1	에리카 자넷 발디비에소 로페스 (페루, 여성·취약계층부 차관)	공공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패널2	프란시스카 모토 영 (카메룬, 여성부 여성역량강화 담당 국장)	여성 역량 강화에서 사회 참여와 리더십으로: 카메룬의 경험과 교훈
패널3	비닛타퓏 포멧 (태국, Shinawatra University 교수)	교육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
패널4	대니얼 무테기 기티 (케냐, 국가통합결속위원회 NCIC CEO)	평화교육과 분쟁 예방의 제도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접근법
패널5	마리아 파울라 프라다 라미레스 (콜롬비아, 2026 예일 평화 펠로우 · 독립 전 략 자문가)	여성 리더십에서 평화구축으로: 콜롬비아의 경험과 교훈
패널6	세고파 나세리 (호주, Sunrise Community 설립자)	지역사회의 평화교육과 여성 리더십: 평화 실천으로 나아가는 여정
패널7	무잔 타헤리 (호주, 유나이티드 서클 커뮤니티 센터 CEO)	여성 역량 강화에서 지역사회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으로
종합정리	월터 냐가 마이나 (케냐, AU WPS 특별사절실 WPS 연구·지식관리 담당관)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WPS 관점에서의 성찰과 공동의 의제



3. 미래세대와 평화

- 일시: 2026.9.17.(목) 14:30~16:00 (90분)
- 장소: 직지홀A
- 식순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4:30~14:33	개회	사회자	영어
14:33~14:38	영상 “미래 세대의 빈자리”	-	-
14:38~15:24	발제	패널	영어
15:24~15:49	패널 토론 및 Q&A	좌장	영어
15:49~15:55	피날레 퍼포먼스	-	-
15:55~16:0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 주요 연사

식순	발표자	발표 키워드
패널1	파우지아 쿠피 (아프가니스탄, 前 국회 제2부의장)	생애 첫 1,000일부터 설계하는 평화
패널2	미샬 아디나 (파키스탄, 파크 크리스천 재단 여성개발부문 이사)	미래세대가 설계하는 평화 - 아이들이 의회에 서는 날
패널3	빈두 아난다 모한다스 (인도, 케랄라주 비말라기리 공립학교 교장)	학교는 평화의 인프라다 - 청년이 직접 세우는 평화의 현장
패널4	에린마 벨 (영국, 맨체스터 왕실 부대표)	거리에서 학교로 - 맨체스터가 증명한 지역사회 평화교육의 힘
패널5	뉴먼 아네슬리 (스리랑카, BBCE 국제대학 총괄 책임자)	설계된 동맹 - 여성이 이끄는 평화의 지원군, 긍정적 남성성
패널6	노마템바 목게티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 주의회 의원, 초당파 여성 코커스 의장)	입법부가 약속하는 미래세대의 평화 - 참여에서 입법으로: 하우텡주 의회 여성 코커스 가 제안하는 미래세대 평화 정책·입법 의제



4. 시민사회와 평화

- 일시: 2026.9.17.(목) 14:30~16:00 (90분)
- 장소: 직지홀B
- 식순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4:30~14:35	개회	사회자	영어
14:35~14:40	기념사	IWPG 글로벌 10국 지국장	-
14:40~14:45	축사	디아나 카이사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영어
14:45~14:52	기조연설	기조연설자	영어
14:52~15:22	패널토론 1	패널	영어/스페인어
15:22~15:45	패널토론 2	패널	영어
15:45~16:0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 주요 연사

식순	발표자	발표 키워드
기조연설	마리아 테레사 로요 팀볼 (필리핀, 카팔롱여성협의회 회장)	미정
패널1	로사리오 비리디아나 (멕시코, 여성 NGO 세무헤 단체장)	패널토론1 "시민사회, 사람을 연결하고 평화를 키우다"
패널2	레지나 팔머 콜먼 (미국, 로펌 대표 및 시민사회 활동가)	
패널3	릴리 콜츠 비소어 (파푸아뉴기니, 변화의 목소리 대표)	
패널4	밀리센트 브루스 (가나, 에너지 퀘스트 재단 이사)	패널토론2 "시민사회, 변화를 이끌고 평화를 확장하다"
패널5	로스 에르마와티 (인도네시아, 쿼텀 폴리테크닉 교육 실무자)	
패널6	리스와티 (인도네시아, 플라워 아체 사무총장)	

글로벌 평화 네트워킹 리셉션

IWPG의 주요 사업과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역별 평화 활동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공동사업과 지속가능한 평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통과 연대의 장입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7.(목) 16:30~18:30 (120분)
- 장소: 그랜드볼룸
- 대상: 전체

2) 식순

*사회자: 포튜네이트 밀와세 싱가포르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6:30~16:32	개회	사회자	영어
16:32~16:47	IWPG 사업소개	이경미 (IWPG 사업본부장)	영어
16:47~17:07	협력사례소개	샤파크 자페리 (호주, AusPak 여성 협회 대표)	영어
		유민숙 (IWPG G10 사업운영부 팀장)	영어
17:07~17:1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
17:10~18:30	지국별 간담회	-	-

3) 사례발표

식순	협력기관	협력 내용
사례1	호주, AusPak 여성 협회	• 제5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드니 예선 공동 진행 • IWPG 글로벌 2국과 MOU 체결 • 여성 평화교육, 여성 폭력 인식 개선 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 여성단체, 언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호주 정부 관계자와의 국제 협력
사례2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UJAT)	• 평화 이니셔티브 MOU 체결 • 평화위원회 설치 및 사무실 개소 • UJAT-UNAM PLTE 평화 강사 양성 • 여성평화교육 진행 및 수료식 개최 • 「IWPG-UJAT 글로벌 시민 국제 프로그램」 수용기관 설립 • 학생 참여형 평화·문화 프로그램 운영



학술네트워크 세션

학술네트워크 세션은 대학·초중고·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여성평화교육(PLTE)의 확산 방향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PLTE의 운영 현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기관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실행 가능한 확산 모델과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을 연결하고, PLTE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한 학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8.(금) 10:00~12:00 (120분)
- 장소: 직지홀A
- 대상: 교육 관계자

2) 식순

*사회자: 아투후라 프림로즈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0:00 - 10:03	개회	사회자	영어
10:03 - 10:15	PLTE 브리핑	IWPG 사업본부장	영어
10:15 - 11:20	라운드테이블	전체	영어
11:20 - 11:35	라운드테이블 내용 발표	각 조장	영어
11:35 - 11:4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평화챗터 워크숍

본 워크숍은 전 세계 IWPG 평화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펼쳐온 평화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여성평화교육과 지역사회 봉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평화를 실현해 온 사례를 나누고, 평화활동의 확대와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공동의 방향과 행동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8.(금) 10:00~12:00 (120분)
- 장소: 직지홀B
- 대상: IWPG 평화위원장 및 평화위원, 지부장

2) 식순

*사회자: 루제코 페이스 반 워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0:00~10:02	개회	사회자	영어
10:02~10:05	평화위원회 활동영상	-	-
10:05~10:22	활동 사례 발표	카렌 엘리자베스 레온 로메로, 평화위원장	영어
		나란후 간치멕, 평화위원장	몽골어
		셀라마윗 레다, 평화위원	영어
10:22~11:42	조별 토의 및 발표	조장	-
11:42~11:47	평화챗터 공표	IWPG 사무총장	한국어
11:47~11:5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3) 사례발표

식순	평화위원회	발표 내용
사례1	멕시코, 혼타스 포르 라 파스 평화위원회	•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 인터뷰 •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기념 온라인 포럼 및 댄스챌린지
사례2	몽골, 바얀주르흐 가츠르트 평화위원회	• 외곽지역 유목민 여성들에게 지원물품 전달 • 여성평화교육
사례3	영국, 맨체스터 평화위원회	• 여성평화교육 •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 평화교육 연계 증오범죄 세션 개최 •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평화 달리기

언론 간담회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연대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 평화 활동과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해외 여성 평화 이슈와 IWPG의 비전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화를 위한 여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함께 모색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8.(금) 10:30~12:00 (90분)
- 장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 대상: 언론인

2) 식순

*사회자: 문미순

시간	내용	진행자	언어
10:30~10:3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한국어
10:33~10:43	여성 평화와 미디어의 역할	IWPG 대표	한국어
10:43~11:18	여성 평화 이슈 발제	파우지아 쿠피	영어
		아흐드 모하메드 살렘 자아수스	영어
		디아나 카이사	스페인어
		케파 N. 오마에	영어
11:18~11:40	질의응답	참가 언론	-
11:40~11:45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한국어
11:45~12:00	네트워킹	사전 지정 매체	-

3) 주요 연사

식순	발표자	발제 주제
발제1	파우지아 쿠피 (아프가니스탄, 前국회 제2부의장)	아프간의 여성 인권과 평화 협상 그 후
발제2	아흐드 모하메드 살렘 자아수스 (예멘, 공화국 지방행정부 장관)	전쟁터에서 복원하는 일상: 예멘 내전 속 지방행정과 여성 거버넌스
발제3	디아나 과달루페 카이사 텔렌차나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유리천장을 깬 원주민 여성 시장: 다양성과 포용의 평화
발제4	케파 N. 오마에 (케냐, NCIC 의장)	분열과 혐오를 넘어 사회 통합으로



메인 세션

여성의 리더십과 평화교육,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평화 활동가와 여성 리더들의 평화 활동을 조명하고, 여성들이 일상과 다양한 현장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실천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주도 평화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을 제시합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8.(금) 14:30~17:00 (150분)
- 장소: 그랜드볼룸
- 대상: 전체

2) 식순

*사회자: 세레이나 슈누올리

시간	내용	진행자/연사	언어
14:30~14:37	개회	사회자	영어
14:37~14:43	기념사	IWPG 대표	영어
14:43~15:21	주제1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	맘푸라네 캐론 크고모	영어
		디아나 카이사	스페인어
		바트 게렐사라나	몽골어
15:21~15:25	영상	-	-
15:25~15:50	주제2 일상의 평화: 분쟁을 전환하는 여성의 행동	아치리 콘스탄스 암보	영어
		파우지아 쿠피	영어
15:50~16:15	주제3 미래세대와 국제연대	캐론 아겐고	영어
		던 미셸 화이트헤드	영어
16:15~16:30	종합 및 결론	IWPG 사무총장	한국어
16:30~16:45	공로패 수여식	사회자	영어
	자문위원, 홍보대사 위촉식	사회자	영어
	MOU 협약식	사회자	영어
16:45~16:57	특별공연	공연팀	-
16:57~17:00	기념촬영 및 폐회	사회자	영어



3) 주요 연사

주제 1 -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



 **맘푸라네 캐론 크고모**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교부 성별·다양성관리부 부국장

- HUG(Heal Unite Grow) 재단 설립자 및 대표, IWPG 홍보대사
- 발제 주제: 일상의 평화를 거버넌스로 - 여성 리더십과 다자외교의 실천
- 핵심 내용: 정부, 외교, WPS, SDGs, 국제협력



 **디아나 카이사**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 발제 주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 핵심 내용: 젠더 폭력 예방, 여성 역량 강화, 원주민 공동체, 농촌 지역 경제 정책, 국제 협력, 여성 리더십



 **바트 게릴 사라나** 몽골 BÖRTE 가족·여성 아카데미 사무총장

- 발제 주제: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여성 리더 양성
- 핵심 내용: 가족, 여성권리, 인적자원개발, 여성리더십, 조직개발, 국제협력, 민간외교

주제 2 - 일상의 평화: 분쟁을 전환하는 여성의 행동



 **아치리 콘스탄스 암보** 카메룬 HAND IN HAND Cameroon 설립자

- 카메룬 주택·도시개발부 도시계획가
- 발제 주제: 여성의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일상의 평화
- 핵심 내용: 지역사회 개발, 여성 리더십, 기후,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소녀



 **파우지아 쿠피** 아프가니스탄 前국회 제2부의장

- Women for Afghanistan(WFA) 회장
- 발제 주제: 희망을 지키며: 분쟁 속 여성의 회복탄력성과 일상의 평화
- 핵심 내용: 회복, 돌봄, 여성의 주체성, 평화 구축, 연대



주제 3 - 미래세대와 국제연대



캐론 아겐고 케냐 아동서비스국 국무차관

- 케냐 국세청 국내세무부 공공부문 담당 매니저
- 발제 주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세대: 회복력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향하여
- 핵심 내용: 아동보호, 성평등,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 회복력,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



던 미셸 화이트헤드 미국대학협회(AAC&U), 글로벌 시민의식 사무국 부총장

- 미국 캠퍼스·지역사회·경력을 위한 글로벌 시민권 사무국 부사장
- 발제 주제: 미래세대가 설계하는 평화
- 핵심 내용: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 시민 참여, 체험형 교육



네트워킹 디너

참가자들이 공식 프로그램 이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기고, 서로 교류하며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1) 기본 정보

- 일시: 2026.9.18.(금) 19:00~21:00 (120분)
- 장소: 그랜드볼룸
- 대상: 사전 참가 신청자

2) 주요식순

- 만찬
- 네트워킹 프로그램

*사회자: 에블리나 헨릭슨

2026 여성 고위급 평화협력회의

여성 리더 및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모여 평화와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입니다. IWPG 대표단과의 미팅을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평화 협력 및 공동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9.17.(목) ~ 18.(금) 상시
- 장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 대상: 사전 참가 신청자

환영사



전나영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여성 리더와 평화 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 대표 전나영입니다. 2026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는 2014년부터 매년 9월 대한민국에서 열려 온,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도 정부와 국제사회, 시민사회, 교육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평화에 대한 경험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평화는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가 바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데에는 하나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평화는 특별한 누군가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회의와 협상 테이블에서도 평화가 논의되지만, 평화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갈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누군가의 어려움에 어떻게 손을 내미는지와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수많은 현장에서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평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고, 갈등을 중재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연결하며, 때로는 폭력과 분쟁 속에서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천은 때로 너무 일상적이라는 이유로, 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이유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일상 속에 평화의 중요한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일상의 평화, 여성의 파워: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하다'입니다.

이 주제에는 우리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성들은 그 평화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해 왔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행동을 어떻게 더 큰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가.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와 평화 활동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경험과 연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와 국제사회로 확장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평화 활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가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목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변화 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단순히 콘퍼런스에 참석한 참가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온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퍼런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WPG는 평화가 일상에서 시작되어 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결국 지속가능한 제도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평화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인연과 대화가 콘퍼런스가 끝난 뒤에도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더 큰 연대와 행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6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과 연결, 그리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아흐드 모하메드 살렘 가소스

예멘 정부 여성정책 국무장관

- 현 여성정책 국무장관
- 2026년 지방행정부 장관 임명

신사 숙녀 여러분, 여성 지도자 여러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연구자와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평화, 여성의 파워: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하다」라는 매우 뜻깊은 주제로, 세계 각국의 여성과 지도자,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국제적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주최측과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평화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화를 단지 먼 미래의 목표로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가치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여러 기관과 국제사회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인류의 경험은 평화가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증오를 거부할 때, 인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때,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과 일할 권리, 사회 참여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때 시작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때 평화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의 평화'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단순히 평화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며, 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 중 하나에만 머무르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성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동반자이며, 사회적 결속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이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이후의 회복과 사회 재건에 기여하는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특히 분쟁과 위기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가족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며, 교육과 보건, 인도적 지원과 사회적 결속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은, 비록 공식적으로 '평화 구축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평화 구축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참여가 정책과 의사 결정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가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의사 결정의 위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법적·제도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는 교육,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여성들이 가진 경험은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사 결정의 테이블에 여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예멘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평화 구축이 단순히 분쟁을 끝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은 사회가 다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가족을 보호하는 것,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국가 기관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대화와 관용,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확립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멘 여성들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주도성,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가족과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며, 인도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책임은 여성을 단순히 분쟁의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을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주체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와 여성의 폭넓은 참여, 그리고 국경과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모든 여성에게는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평화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믿음입니다. 평화 구축은 정부나 국제기구만의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힘과 지식, 협력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세계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갈등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 교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고정관념을 허물며,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세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화는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힘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힘은 경험을 지식으로, 지식을 실천으로, 실천을 변화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지도자와 기관, 정책 결정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평화 구축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 지원
-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



- 여성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화 활동 지원
-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자료로 발전

우리가 조국과 세계를 위해 바라는 평화는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한마디의 말, 폭력을 거부하는 가정, 관용을 가르치는 학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기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믿는 세계에서 평화는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평화 구축 참여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십입니다. 이번 회의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며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이디어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성이 평화 구축에 참여할 때 평화는 더욱 포용적인 것이 됩니다. 평화의 가치가 일상의 실천으로 전환될 때 평화는 더욱 지속 가능해집니다.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연대할 때 평화의 미래는 전 세계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가 됩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회의의 논의가 실질적인 파트너십과 구체적인 평화 이니셔티브로 이어져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사



디아나 카이사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 2023-현재 암바토 시장
- 2019-2022 암바토 농촌지역 시의원; 2019~2020년 부시장 역임

알리 푼야, 투쿠이 무숙 와르미쿠나, 마시쿠나.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지닌 모든 여성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뿌리와 역사의 목소리를 담은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통구라와 화산의 품에 안긴 고지대의 땅, 바로 역사의 상처로 생긴 갈라진 틈 위에서도 대지가 꽃을 피우는, 에콰도르의 중심부 암바토에서 왔습니다. 저는 디아나 카이사입니다. 여성으로서 젊은 세대로서 키추아치볼레오 민족의 피와 전통 의상, 그리고 지혜를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과 여성들이 시장의 자리에 함께 앉아 도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없이 땅을 일구고, 전쟁과 수탈 속에서도 삶을 지켜냈으며 제게 평화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화가 깃든 상태라고 가르쳐 주신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에콰도르 안데스의 세계관에서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즉 '좋은 삶(Buen Vivir)'을 빼놓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막 카우사이는 우리가 자연과 공동체, 가족, 그리고 조상들의 기억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과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의 평화(Peace in Everyday Life)'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데스의 시간에서 저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세계 외교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차가운 문서에만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엮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부엌에 존재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학교에 존재하며, 폭력 없이 씨앗을 뿌리는 땅에도 존재합니다. 평화는 매일의 힘이며, 평화로운 저항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평화에는 분명히 여성의 얼굴과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안데스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깊이 벅차오릅니다. 대양을 건너 이곳에 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데스의 산맥과 아시아의 오랜 지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끈이 이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과 재건의 고귀함을 지닌 땅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사상 깊은 곳에는 균형과 에너지의 흐름, 어른에 대한 지극한 존중, 그리고 땅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안데스 문화에서는 땅을 파차마마(Pachamam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 아시아에서도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남쪽의 원주민들은 모두 잣더미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고, 존엄을 지키며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이 있었던 자리에 희망을 세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현대의 세계가 잊어버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돌봄의 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어쩌면 꿈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행동과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여성 리더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참혹한 전쟁과 차별, 증오, 그리고 깊은 사회적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폭력에 맞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IWPG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평화를 배운 한 명의 여성은 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되고, 평화를 위해 하나 된 수천 명의 여성은 지구를 변화시킵니다. 청주를 떠날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연민과 용기, 공동체를 중심에 둔 리더십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품고 갑시다.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정신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지켜온 지혜가 우리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지구 곳곳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파이차니(Yupaychani).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



맘푸라네 캐론 크고모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교부 성별·다양성관리부 부국장

- 2025년~현재: HUG(Heal Unite Grow) 재단 설립자 및 대표
- 2025년: IWPG 홍보대사
-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DIRCO) 성평등 담당 부국장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

- 발제 주제: 일상의 평화를 거버넌스로 - 여성 리더십과 다자외교의 실천
- 핵심 내용: 정부, 외교, WPS, SDGs, 국제협력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여성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구축 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성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하는 노력이 어떻게 제도와 공공정책,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평화를 위한 간부(Cadre for Peace)입니다.”

이 표현은 고(故)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 지도자 마마 거트루드 쇼페(Mama Gertrude Shope)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봉사, 교육, 그리고 평화로운 변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 ‘평화를 위한 간부’가 된다는 것은 평화가 공식적인 협상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직장,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여성의 목소리에서 제도적 실천으로

우리의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명확한 참여 과정과 연결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성들이 지역사회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그 문제를 논의하고 기록하며, 실질적인 제안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제안을 관련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필요한 지원이 확보되면 그 제안은 승인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사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관계협력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에서 10일간 진행되는 평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Peace Leadership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구축과 분쟁 예방, 대화와 리더십에 대한 여성들의 지식과 자신감을 강화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 및 여성살해 근절을 위한 ‘젠더 기반 폭력 및 여성살해에 반대하는 16일간의 행동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and Femicide)’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명확한 목표와 관련 교육 내용, 그리고 제도적 가치를 갖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안서를 전달하고 의사결정권자들과 협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교육과 여성 리더십이 공공서비스의 책무는 물론, 성평등과 국제협력, 평화와 안보라는 보다 폭넓은 국가적 우선과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협의와 소통,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성의 리더십이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기관과 소통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여성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평화구축과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중재, 대화, 분쟁 예방, 사회적 결속, 리더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을 넘어 실제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화교육

이러한 활동에 이어 우리는 직장 내에서도 평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화구축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직장 역시 평화의 가치가 실천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교육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공감, 협력, 건설적인 대화, 그리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은 기관에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리더십을 가져옵니다. 여성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여성들은 소통을 개선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존엄과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평화교육은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평등, 직원의 웰빙, 직업윤리,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을 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이 지역사회의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존중받으며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파트너십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는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협력은 여성·청년·장애인부(Department of Women, Youth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와 하우텡 주의회 여성 다당제 의원 모임(Gauteng Legislature Women's Multiparty Caucus)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며 IWP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협력과 공동 활동,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 외교가 공식적인 국제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통점을 찾고,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조직에서 매일 이러한 형태의 외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내며,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요하네스버그 시(City of Johannesburg)와의 협력은 평화구축을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현실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일하고, 가족을 이루는 공간에서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의 평화 이니셔티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리더십이 더 넓은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역량 강화와 평화교육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신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워크숍과 정보 공유, 평화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분쟁 예방, 중재, 인권, 성평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기관이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활동은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로도 확대되었습니다. 평화구축에는 다음 세대 역시 반드시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중과 공감, 대화,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배운 학생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평화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의견의 차이가 반드시 증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서로의 다름이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평화의 가치가 교육될 때, 이러한 가치는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긍정적인 리더십, 건강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가시성이 가져오는 책임

IWPG 홍보대사로서 저는 평화교육을 알리고 여성 평화구축 활동가들의 기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저는 가시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해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달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은 단순히 평화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교육자이자 중재자이며, 협상가이고, 지역사회의 지도자이자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은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의 핵심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

우리의 경험은 여성의 리더십이 명확한 과정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옹호로 이어지고, 옹호는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며, 파트너십은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제도적 실천은 더 넓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평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직장 내 평화교육, 정부기관과의 협력, 지방정부와의 소통,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직장문화, 그리고 공공정책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마 거트루드 쇼페의 유산은 우리에게 평화에는 용기와 조직력, 그리고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나는 평화를 위한 간부입니다.” 이 말은 대화를 촉진하고,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발제



디아나 카이사

에콰도르 암바토시 시장

- 2023-현재 암바토 시장,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Puntos Violetas' 사업 및 시 기업가정신 학교 설립
- 2019-2022 암바토 농촌지역 시의원; 2019~2020년 부시장 역임
- 여성 역량 강화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주도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

- 발제 주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 핵심 내용: 젠더 폭력 예방, 여성 역량 강화, 원주민 공동체, 농촌 지역 경제 정책, 국제 협력, 여성 리더십

알리 치시, 투쿠이 마시키쿠나. (원주민 언어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자매, 형제 여러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각국의 대표단과 여성 리더, 그리고 평화를 만들
어가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암바토(Ambato)에서 왔습니다. 암바토는 대지진의 아픔
을 딛고 공동체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도시입니다.

저는 원주민 여성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암바토 205년 역사상 최초로 민
주적으로 선출된 원주민 여성 시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의사결정의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소녀들을 대
표하기 위함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묵묵히 지탱해 온 농촌 여성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의 노
동과 지혜를 바쳤지만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 개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확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새로운 역량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역량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입니다. 교육, 경제적 자립, 정치 참여, 안전,
그리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가 그것입니다.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리더십은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공동체와 자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고, 경청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니(Ayni)의 정신, 즉 상호 호혜의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지속
적으로 번영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즉 '좋은 삶(Buen
Vivir)'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조화, 그리고 공동의 책임 속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 과제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
다.



여성 리더십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여성들이 얼마나 제도를 변화시키고, 다른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열어 주며, 대표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역량 개발은 몇 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기술, 재정적 지원, 그리고 리더십의 기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역량을 갖춘 여성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여전히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적 책임을 맡게 되었더라도 지지 네트워크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계속됩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암바토에서는 '통치란 곧 돌봄이다'라고 믿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안전한 공공공간은 한 소녀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영유아 돌봄센터는 일하는 어머니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업 교육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은 여성 창업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제협력은 청년, 농촌 여성, 원주민 공동체가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식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협력이 역량을 실제 기회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여성단체, 학계, 민간부문, 국제협력이 함께할 때 지식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형평성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소녀들이 여전히 권력이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다고 배우는 사회라면, 어떤 전략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평화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여성 롤모델이 필요하며, 언론 또한 여성을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협상가, 과학자, 기업가, 그리고 지도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상의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차별 없는 학교에서,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평화가 수 많은 지역사회에서 축적될 때, 세계 거버넌스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약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녀와 여성의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지식과 기회, 해결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상징적으로 의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테이블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그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 여성의 역량 강화가 또 다른 여성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관이 열어 준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의 결정이 평등이 약속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기를 바랍니다.

유파이차니(Yupaichani). 감사합니다.

발제



바트 게릴 사라나

몽골 BÖRTE 가족·여성 아카데미 사무총장

- 현) 몽골 국회의원 D. 우리인투야(D. Uuriintuya) 외교 자문관
- 2013~현재: 국제전문개발연구소(IIPD) 설립자 겸 사무총장
- 인적자원개발(HRD)·인적자원관리(HRM) 전략가, 국가브랜딩 전문가, 여성 리더십 및 조직개발 전문가로 20년 이상의 경력 보유, AI 전환 교육 전문가로 2년 이상의 경력 보유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

- 발제 주제: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여성 리더 양성
- 핵심 내용: 가족, 여성권리, 인적자원개발, 여성리더십, 조직개발, 국제협력, 민간외교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평화는 협정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로 지켜집니다. 그렇기에 여성 리더십은 단순한 대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사회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로 확장되는 평화와 회복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오늘 저는 몽골 국무총리 나. 우치랄(N. Uchral) 총리의 구상으로 설립된 몽골 최초의 가족·여성 리더십 국가 기관인 BÖRTE Family & Women's Academy를 대표하여 이처럼 뜻 깊고 권위 있는 무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이름은 몽골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 보르테 우진(Börte Üjin)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르테는 단지 칭기즈 칸의 대황후였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를 안정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낸 어머니였습니다. 몽골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국가는 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가족,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지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여성의 발전을 참여의 숫자로 측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 생태계입니다. 몽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폭풍을 견디지 못하듯, 가치에 뿌리내리지 않은 리더십은 시대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섯 가지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 가치에 기반한 목적
- 내면의 자신감
- 세대를 잇는 멘토십
-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교육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질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리더십 교육으로 가장 기르기 어려운 자질은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면의 용기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희망을 만들어 내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는 오직 경험과 가치, 그리고 세대를 잇는 멘토십을 통해 길러집니다.

몽골에는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 성장하고, 용기와 인내로 기억된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자신의 삶으로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가치 있는 미래를 남기는 삶의 사명입니다. 결국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신뢰를 주었는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었는가? 누구에게 평안을 남겼는가? 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몽골이 제안하는 해법 — BÖRTE Model

이러한 신념에서 BÖRTE Academy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적자원개발과 조직혁신 분야에서 일하며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을 단순한 교육 참여자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음 변화를 시작할 리더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BÖRTE Model은 다섯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가족의 회복력
- 여성 리더십
- AI 기반 학습
- 세대를 잇는 멘토십
- 시민외교

몽골의 유목 전통에서는 아이가 한 사람에 의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조부모의 지혜, 어머니의 가치관, 공동체의 책임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 문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리더십은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상에 올라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이어 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평화는 단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의 협력을 정부 간 협정으로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로 평가할 것인가?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서 시민외교의 새로운 시대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AI를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젊은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가정의 화합은 사회로 퍼지고, 사회의 화합은 세계로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협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를 향한 세 가지 제안

오늘 저는 이 포럼에 세 가지 공동의 약속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성의 참여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리더십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둘째 몽골 사람들은 자연을 ‘어머니인 대지’ 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발자국은 남길 수 있어도, 자연에 상처는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몽골의 많은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산과 강, 샘과 초원을 존중하는 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저에게 멘토십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세대를 넘어 이어 가는 일입니다.

셋째 AI는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된다면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인간을 대신하는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몽골의 외딴 지역 여성들에게 세계의 지식과 멘토십,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만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이 결정합니다.

몽골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고, 맺어질 인연은 반드시 이어진다.”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고 평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만 하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협력을 시작합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말은 언젠가 잊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쌓은 신뢰는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세상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강인하며,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언젠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르테 아카데미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를 잇는 평화 리더십의 가치 시스템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아치리 콘스탄스 암보

카메룬 HAND IN HAND Cameroon 설립자

- 2023-현재, HAND IN HAND Cameroon 설립자 겸 코디네이터
- 2016 ~ 현재, 카메룬 주택·도시개발부 도시계획가
- AFPRO 2026 UNIDO ITPO Korea 초급 시장 컨설턴트

일상의 평화: 분쟁을 전환하는 여성의 행동

- 발제 주제: 여성의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일상의 평화
- 핵심 내용: 지역사회 개발, 여성 리더십, 기후,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소녀

제 이름은 아치리 콘스탄스 암보입니다. 저는 HAND IN HAND Cameroon의 설립자이며, 카메룬 주택 도시개발부에서 도시계획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매우 뜻깊은 주제인 「여성의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일상의 평화」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평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협정에 서명하거나 회의장에서 선언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오히려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 때, 존엄이 지켜질 때, 기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부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자신의 공동체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여정을 형성한 경험: 고난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먼저 제가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평화구축을 향해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저의 경험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메룬 북서부 지역의 켄 은지니비(Zem Njinibi)라는 마을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와 사냥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부모님과 어머니가 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생리대나 옷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물품이 부족했습니다.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갖는다는 것은 좀처럼 누릴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토마토를 팔며 고된 삶을 이어갔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이모였습니다. 제 이모는 우리 가정에서 역량을 갖춘 한 명의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이어갔고, 결국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가족의 책임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모는 먼저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 서로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조언 덕분에 우리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존중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역량 강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성이 역량을 갖추게 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힘을 얻고,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보여준 현실, 그리고 나의 전환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저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다툼을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여성살해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수많은 보도를 접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여성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역량 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쓰레기 관리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들이 충분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성들은 요리하고, 장을 보고, 물건을 포장하고, 빨래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먼저 생활 속 쓰레기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도시계획가로서의 전문적 여정에도 영향을 주었고, 성평등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결해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자녀와 함께 버려진 여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미래를 지켜내며, 사회가 혼란과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경제적 힘이 약하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여성들이 얼마나 큰 불리함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노출되고, 가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가족 안에서 한 명의 역량 있는 여성이 만들어낸 변화와, 제가 주변에서 목격한 수많은 역량이 부족한 여성들의 현실 사이의 큰 차이. 바로 그 대비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HAND IN HAND Cameroon을 통한 희망 만들기

이러한 이유로 저는 HAND IN HAND Cameroon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여성이 역량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가족의 성장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고, 이를 깊이 믿고 있습니다. 역량을 갖춘 여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이끌며,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평화로 이어지고, 더욱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와 교육, 평등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자신감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단순한 변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성들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불씨를 더욱 밝게 피워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그렇다면 여성의 리더십은 어떻게 더욱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현실을 바탕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량을 갖춘 여성들이 평화로운 활동을 직접 이끌어야 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는 정책으로 선언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려움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힘과 가능성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이모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한 명의 역량 있는 여성이 한 가정을 하나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제 이모가 가정에서 시작했던 그 행동을 더 많은 여성들이 이어가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이곳에 모인 각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시작해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모든 국가로 그 변화를 넓혀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여성의 리더십이 공동체와 사회, 나아가 한 국가를 하나로 묶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제가 자라온 가정과 같은 곳에서, 여성들의 용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선택하는 실천을 통해 매일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평화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발제



파우지아 쿠피

아프가니스탄 前국회 제2부의장

- 현 Women for Afghanistan(WFA) 회장
- 2020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단 위원
- 2010 아프가니스탄 의회 최초의 여성 제2부의장

일상의 평화: 분쟁을 전환하는 여성의 행동

- 발제 주제: 희망을 지키며: 분쟁 속 여성의 회복탄력성과 일상의 평화
- 핵심 내용: 회복, 돌봄, 여성의 주체성, 평화 구축, 연대

여성은 분쟁의 피해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성은 분쟁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여성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분쟁과 전쟁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약 25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화협상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Track II) 등 평화구축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와 포용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성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단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참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협상 과정에 포함되었다면, 여성의 참여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의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평화협정의 모든 사안, 재정, 안보, 정치구조 등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는 협상 테이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참여하면서 저는 여성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동의하듯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그 평화에 관한 결정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5년부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는 여성들이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 지도자들을 결집했습니다.

또한 평화구축에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이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협상 테이블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네 명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조직하고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평화구축에 더해지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평화구축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평화의 과정은 사회 전체의 필요와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총성이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안에 자신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존엄과 권리, 기회와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른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이 안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여성들이 제게 이야기하듯이, 사회·정치적 삶에서의 참여가 배제된 안보는 마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불의는 결국 모든 곳의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평화·안보(WPS) 의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문제는 세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조직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엔(UN)에 호소합니다. 가장 가혹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평화를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분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누가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지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성은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테이블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테이블에 있어야 합니다.

발제



캐론 아겐고

케냐 아동서비스국 국무차관

- 2020-현재: 케냐 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국내세무부 공공 부문 담당 매니저
- 2012-2020: 케냐 국세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및 중견 납세자 담당
- 2002-2012: 케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탈세 조사, 납세자 교육 및 조사 팀 관리

미래세대와 국제연대

- 발제 주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세대: 회복력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향하여
- 핵심 내용: 아동보호, 성평등,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 회복력,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전나영 대표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케냐 공화국을 대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케냐 젠더·문화·아동 서비스부와 케냐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여성은 최초의 평화 구축자입니다. 여성은 최초의 교사이자 최초의 보호자이며,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이들입니다. 여성이 힘을 얻으면 가정이 강해지고, 가정이 강해지면 지역사회가 회복력을 갖추게 되며, 지역사회가 회복력을 갖추면 국가가 평화로워 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제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 지역사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동의 안녕을 논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여성이 리더십과 기회에서 배제된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케냐는 아동 보호가 단순한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동이 폭력, 착취, 유해한 관행, 방임을 경험하면 그 여파는 유년기를 넘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평화로운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냐는 헌법상의 보장과 2022년 아동법(Children Act), 그리고 가정·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촉진하는 국가돌봄개혁전략(National Care Reform Strategy)을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법과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단지 돌봄 제공자로서만이 아니라 지도자, 혁신가, 기업가, 교육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성은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고유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이 이끄는 때 안보에 대한 이해는 더욱 확장됩니다. 이는 단지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존엄과 기회, 그리고 인간의 웰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 가정은 더욱 회복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 소녀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교육의 기회를 얻으면, 그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래 세대는 우연히 평화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가치와 제도, 기회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 지도자, 지역사회, 가정 사이의 굳건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얻은 여성, 든든한 지역사회, 응답하는 정부, 그리고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법률과 제도, 서비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신뢰와 접근성, 혁신, 그리고 지역 주도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아동이 성장할 수 있고 여성이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호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오늘날 여성과 아동이 직면한 폭력, 인신매매, 온라인 착취, 강제 이주, 기후 재난, 분쟁과 같은 문제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를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미래 세대는 케냐만의, 한국만의, 아프리카만의, 유럽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에 그 희망과 기회가 달려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예방에 투자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는 체계를 전 세계에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는 회의장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여성이 힘을 얻는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는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투자는 바로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소녀가 두려움 없이 꿈꿀 수 있고, 모든 아동이 안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모든 여성이 존엄을 지니고 이끄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여성에게 힘을 실어 줄 때 평화는 배가되고, 우리가 아동을 보호할 때 미래는 지켜지며, 이 둘을 함께 이루어 낼 때 세대를 이어 지속될 유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Asanteni Sana(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발제



던 미셸 화이트헤드

미국대학협회(AAC&U), 글로벌 시민의식 사무국 부총장

- 2019-현재 미국대학협회(AAC&U), 미국 글로벌 시민의식 사무국 부총장
- 2015-2018 미국대학협회(AAC&U), 미국 글로벌 학습 및 교육과정 변화 선임 디렉터
- 2007-2015 인디애나대학교 인디애나폴리스, 미국 교육과정 국제화 디렉터

미래세대와 국제연대

- 발제 주제: 미래세대가 설계하는 평화
- 핵심 내용: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 시민 참여, 체험형 교육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받는 공동체(The Beloved Community)'라는 개념과,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인 글로벌 학습(Global Learning)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도 깊은 분열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명의 사상가와 신학자가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이 개념은 보다 폭넓은 맥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버드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조시아 로이스(Josiah Royce)입니다. 그는 1913년에 처음으로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공동체란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에 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신의 사랑에 기반한 개인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는 특정한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구성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신학자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입니다. 그는 로이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철학자이자 교육자, 목회자였던 그는 하워드대학교와 보스턴대학교에서 채플 학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의 종교적·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간디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받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비폭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받는 공동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먼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는 통합(integration)입니다. 단순히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 둘째는 조화(harmony)입니다. 우리의 차이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 셋째는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의 존엄을 두는 것입니다. 서먼의 사상은 세 번째 인물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Rev. Dr. Martin Luther King, Jr.)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킹 목사는 사랑 받는 공동체를 하나의 명확한 정의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연설을 통해 그 개념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종, 성별, 계층,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갈등이 쓰라림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한때 서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평화 만들기의 모습입니다.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미국의 학자 벨 훅스(bell hooks)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개념에 보다 현대적인 관점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급진적인 개방성(radical openness)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공동체에 속하는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또한 공동체란 갈등이 전혀 없는 공간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도록 서로를 이끄는 힘입니다. 또한 ‘시민(citizen)’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지배적인 모델에 맞춰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속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다양한 방식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는 평화 만들기(peacemaking)와 평화 구축(peacebuilding)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 만들기과 평화 구축은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련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에는 상호 존중, 공유된 인간성, 공동의 책임, 그리고 문화적 겸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배움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여성 리더십, 평화교육, 그리고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의 지도자 및 실무자들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학습 분야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네 가지 핵심적인 평화 만들기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인턴십,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서비스 러닝, 연구, 그리고 실무자들과 협력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협력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마주했을 때 판단하기보다 질문하고,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며, 다음 세대의 평화 만들기과 평화 구축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분열이 아니라 연대가 우리를 공동의 미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랑받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역량을 직접 실천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분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사랑받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먼저 각자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으며,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벨 훅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 공유된 인간성, 공동의 책임, 문화적 겸손.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종합 및 결론



최경남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사무총장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세션을 통해 여성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갈등과 분쟁의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평화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늘의 평화를 어떻게 미래세대와 더 넓은 국제적 연대로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들었고, 보았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출발한 이야기였지만, 오늘의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되고 실천되며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평화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참여자이자 리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우리는 여성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참여는 단순히 어떤 자리에 여성이 몇 명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존재함'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소리와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더욱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뉴스 속의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집과 가족, 건강과 생계, 인간관계와 미래를 흔드는 일상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갈등을 중재하며, 때로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여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용기와 헌신만으로 평화를 지켜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으려면, 그 행동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회와 제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을 통해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오늘의 여성 리더 몇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평화를 배우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시작된 경험이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연결되고, 서로 배우며 새로운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이러한 이야기와 문제의식은 몇몇 연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난 7월, IWPG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여성들과 이 질문을 보다 넓게 나누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에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및 유럽, 미주, 남아시아 및 중동의 네 개 지역 세션을 통해 46개국 약 1,070명의 여성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지역사회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논의했습니다. 지역과 상황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분쟁과 강제이주가 가장 절박한 문제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성별 기반 폭력과 차별, 여성의 참여, 교육과 지역사회의 문제가 더 크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현실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보니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통된 우선순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 폭력 예방, 평화교육, 회복과 사회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구축이었습니다.

IWPG는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권고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권고안이 더 나은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IWPG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각 지역을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의 논의와 의사결정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콘퍼런스에서 나눈 이야기와 이 권고안을 함께 놓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여성의 참여는 실질적인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안은 여성이 단순히 의사결정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한 여성 리더십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은 초대받는 참여자를 넘어, 의제를 만들고 결정을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여성의 행동을 사회와 제도가 함께 뒷받침해야 합니다.

포럼에서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정책뿐 아니라 의료·법률·심리사회적 지원, 안전한 보호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은 여성에게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치유, 생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는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는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평화와 상호 존중,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배우고, 청소년이 미래의 평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연대는 한 지역의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되 각 지역의 문화와 현실, 그리고 현지 여성들의 목소리에 맞게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그 책임은 어느 한 주체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과 제도, 교육과 지역사회의 행동이 서로 연결될 때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는 더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권고안」은 완성된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나온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대화와 협력, 그리고 행동을 위한 공통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콘퍼런스 현장으로 돌아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역시 이 무대 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서로 연결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공로패 수여식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함께할 자문위원과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는 MOU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의 여러 프로그램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여성의 힘과 국제연대가 실제 관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험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경험을 지식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고, 더 나은 사회와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콘퍼런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과제입니다.

한 여성의 일상에서 시작된 평화가 지역사회의 변화가 되고, 각 지역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국제적 연대가 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린 선택이 다음 세대의 더 평화로운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IWPG 역시 세계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계속 연결하고, 여성의 평화 리더십이 각 지역에서 성장하며, 그 목소리가 더 넓은 정책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작된 대화와 인연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WPG